

그랜드슬램 66회 연속 출전 대기록

페더러 65회 기록을 넘은 로페즈의 17년 도전사

올해 Wimbledon은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부상으로 시달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우승에 따른 화려한 재기, 24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에 단 하나의 승수가 부족했던 워킹맘 세레나 윌리엄스(미국)와 여자 상위 시드 선수들의 조기 탈락까지 술한 화제를 낳은 가운데 한 남자의 대단한 기록이 조용히 Wimbledon의 잔디코트를 수놓았다. 무려 그랜드슬램 66회 연속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코트의 마성남 펠리치아노 로페즈(스페인). 그의 기록이 지닌 의미와 그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보자.

글_ 전채향 객원기자 사진_ GettyimagesKorea

극적인 그랜드슬램 본선 데뷔

한 시즌에 그랜드슬램은 총 네 차례 열린다. 무려 66회 연속 출전, 17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내며 로페즈는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그랜드슬램에 출전한 것이다. 이 기록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는 그의 나이와 그가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기 전까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선수를 보면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다.

올해 36세 로페즈는 20살이었던 지난 2002년 프랑스오픈을 통해 그랜드슬램에 처음 출전해 66회 연속 출전 기록의 서막을 올렸는데 시작

부터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였다. 당시 프랑스오픈 예선 결승에서 자국 동료인 디닥 페레즈에게 저 본선 진출이 무산됐던 로페즈는 챌린저 출전을 위해 짐을 싸던 중 본선 진출자의 기권으로 인해 공석이 생겼다는 뜻밖의 낭보를 접수하며 럭키루저로 본선에 합류하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그랜드슬램 본선 데뷔 무대는 더 극적이었다. 바로 예선 결승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던 페레즈를 또다시 만나게 된 것. 운명의 장난 같은 이 맞대결에서 로페즈는 이번에는 제 실력을 발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2회전에 올

라 잊지 못할 데뷔 무대를 완성했다. 그랜드슬램에 갓 발을 들였던 20살의 어린 선수는 시간이 흘러 그후 65번이나 더 그랜드슬램에 출전하는 베테랑이 되었는데 그가 이 기록을 유지하기까지 두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6년 전인 지난 2012년 프랑스오픈을 앞두고 연습 도중 근육이 일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그는 대회 출전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였으나 치료 후 대회에 나설 수 있었고(1회전에서 기권) 지난해 Wimbledon에서는 경기 도중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하였으나 다행히 경기 도중 얻은 부상이라 기록 경신과는 무관하였다.



그의 기록 경신 이전 기록 보유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의 기록이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바로 살아있는 전설 페더러이기 때문이다. 페더러는 로페즈와 동갑으로 지난 2016년 자신의 무릎 보호를 위해 프랑스오픈 출전을 철회하기까지 65개 대회 연속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철옹성과 같았던 대기록을 로페즈가 넘어서었다. 로페즈는 이제 다가오는 US오픈에 출전하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경신할 예정이다.

로페즈가 밝힌 대기록 비결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상이 없어야 공백기 없이 온전히 대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페즈는 “나는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큰 부상을 겪지 않았다. 20여 년에 가까운 투어 생활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몸 관리에 늘 신경 써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건강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비결임을 밝혔다. 그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쓴 편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크게 느껴왔음을 내비쳤다.

로페즈는 “서른이 넘으면서 나는 건강 유지와 투어에서 더 오래 뛰기 위해 뭔가를 바꿔야 함을 느꼈다. 코트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 나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과거보다 트레이닝 시간을 늘리는 등 코트보다 코트 바깥에서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물론 코트에서의 연습 시간을 줄인 것은 아니며 단지 코트 바깥에서의 준비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있다. 서른이 넘어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 이유는 나의 상대가 나보다 10살 또는 15살이나 어리고 훨씬 더 힘이 넘치는 선수들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다. 또한 체력이 보강되자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며 투어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정신력 또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로페즈는 체력 단련 외에도 식단 조절을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꼽았다. 과거 그는 무한한 식성을 자랑하며 많이 먹고 많이 뛰는 방식을 고수했으나 서른이 지나면서 나잇살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볍게 먹고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자주 하는 방식으로 고쳐 나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단번에 끊었고 빵과 유제품 역시 그의 식단에서 제외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소화하여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차단하였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는 등 건강식으로 식단 자체를 180도 바꾸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로페즈가 페더러에게 거둔 유일한 승

지난 7월 3일, 자신의 Wimbleton 1회전 경기를 마

로페즈는 올해 Wimbledon 출전으로
그랜드슬램 최다 연속 출전 기록을 세웠다



친 후 대기록 달성에 성공한 로페즈는 공식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자마자 함박웃음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랜드슬램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해서 정말 기쁘다. 얼마 전부터 이 기록을 내가 달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드디어 페더러를 이기구나’.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오픈시대 이후 그랜드슬램 최다 출전 기록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면서 그 이전 기록의 주인공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 받는 페더러였다는 점은 로페즈를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는 어쩌면 더 큰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로페즈는 페더러와의 투어 상대전적이 무려 13전패. 주니어 시절 마지막으로 만났던 유럽실내주니어대회에서는 로페즈가 이겼는데 이 승리는 현재까지 페더러를 상대로 한 로페즈가 거둔 유일한 승리다.

대기록을 로페즈에게 내준 페더러는 “그가 대기록을 달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로페즈와 나의 추억을 되짚어보면 하트필드에서 열린 16세 이하 주니어대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6살이 된 지금까지 서로의 기록을 경신하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로페즈의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체력을 유지하고 테니스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니지 않나 싶다. 그랜드슬램 최다 출전이 나의 큰 목표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나 역시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유지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나와 로페즈처럼 더 많은 선수가 이런 기록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랜드슬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예전처럼 특정 그랜드슬램을 선호하는 사례가 더 적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혔다.

로페즈의 자국 동료인 라파엘 나달도 “그는 정말 좋은 친구다. 그랜드슬램에 연속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부상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운도 따라야 하지만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기록의 주인공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박수를 보냈다. 한편, 로페즈의 기록에 도전하는 이가 있으니 다른 아닌 그의 또 다른 자국 동료 페르난도 베르다스코다. 한 때 톱10을 기록하기도 했던 영원한 다크호스 베르다스코는 현재 60회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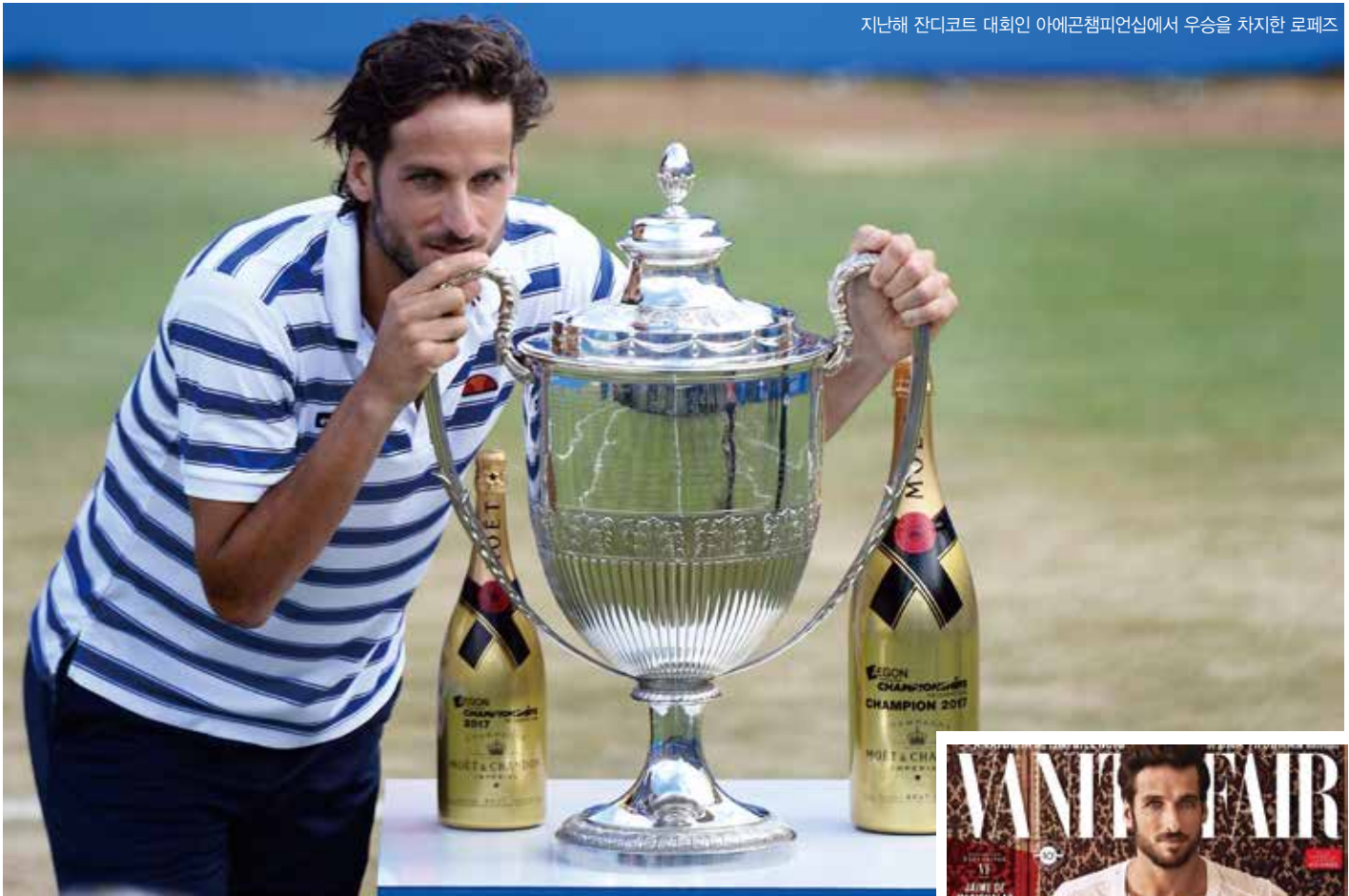


로페즈는 실력뿐만 아니라 잘 생긴 외모로 여성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전을 기록 중이기에 만약 로페즈가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베르다스코가 그의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로페즈는 “베르다스코는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서 나를 추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보다 두 살 어리기 때문에 나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웃으며 동료에 대한 경계심 역시 늦추지 않았다. 로페즈는 마스터스 시리즈 최다 연속 출전 기록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무투아마드

리드오픈에 출전하며 130회 연속 마스터스 시리즈 출전이라는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내년부터 무투아마드리드 오픈의 토너먼트 디렉터로 임명되어 세계남자테니스협회의 규정에 따라 선수로서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마스터스 최장 출전 기록은 멈추게 되겠지만 그랜드슬램 최장 출전 기록 경신은 그에게 끝이 없는 도전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잔디코트 대회인 아에곤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로페즈



실력과 외모를 갖춘 로페즈, 그는 누구인가?

1981년 9월 20일 스페인의 중세 도시 톨레도에서 태어난 로페즈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왼손잡이이자 한손 백핸드를 구사하며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 베이스 라인에 붙어 주저 없이 공을 강하게 치는 스타일로 서브 앤 발리에도 능숙해 복식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마크 로페즈(스페인)와 짝을 이뤄 2년 전 프랑스오픈 복식 우승도 달성한 경험이 있다.

긴 랠리를 좋아하는 동료 스페인 선수들과는 달리 그는 정반대의 경기 운영을 즐기는데 가능하다면 2~3구 안에 바로 공격을 시도하며 최대한 랠리를 짧게 가져간다는 점이다. 실제 그가 보유하고 있는 6개의 단식 타이틀 중 3개를 잔디코트 대회에서 획득했는데 이는 그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반증하는 동시에 그가 스페인 선수라는 점에서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로페즈도 “나는 랠리가 짧을수록 좋다. 이러한 경기 스타일은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공도 쉽게 치는 편이기 때문에 투어 생활을 비교적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자신의 비결을 분석하기도 했다.

개인 최고 세계랭킹은 지난 2015년 기록한 12위이며 현재는 71위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10년 이상 수준급 실력을 선보이며 투어 상위권에 줄곧 이름을 올린 로페즈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수려한 외모로 아직까지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남성 명품 브랜드 휴고 보스를 비롯하여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 면도기 업체 브라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엘레쎈 등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몸매로 엘르, 배니티 페어, GQ와 같은 패션 잡지의 커버 모델로도 나서는 등 외모와 실력을 동시에 지닌 축복받은 선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셸럽보다 테니스 선수로 불리기를 원한다니 그의 테니스에 대한 사랑이 아직은 더 큰 것 같다.

무려 17년이나 투어에서 뛰며 이제 커리어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이기에 은퇴에 관한 질문도 최근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럴 때마다 그



스페인 매거진 '배니티 페어' 커버 모델로 등장한 로페즈

는 오히려 매우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난 매일 하루하루만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테니스에 대한 생각부터 한다.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만큼 은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언젠가 그렇지 않은 날이 올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테니스와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

내년 무투아마드리드오픈의 새로운 토너먼트 디렉터로 임명되며 은퇴 소문에도 험사였으나 변함없이 선수로 투어를 누빌 계획을 밝힌 로페즈가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해 팬들에게 멋진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기를 희망해본다. 